

눈부신 황금 이파리의 함성이 끝나면, 축제도 끝나리

은행나무 이야기

나무의 고향은 산이요 숲속이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산에 살지 않는다. 삭막한 도심의 가로수로 낮인다. 도심을 점령한 산악계절라가 아니라 시멘트가 도시의 색깔이 된 세상에 은행나무는 도시의 팍팍함을 삭혀주는 고마운 위로다. 여름철엔 짙푸른 녹음으로 위로하고 가을엔 황금빛 단풍으로 근심을 잊게 한다. 바람이 불어 노란 은행잎이 눈발처럼 우수수 떨어지면 어른도 아이가 된다. 영화, 드라마의 명장면에도 자주 등장한다. 뽀뽀하게 달린 은행알을 줌느라 좀 고약한 냄새를 가까이 감수하기도 한다.

은행 열매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씨앗의 일부이다. 은행나무는 겉씨식물이라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씨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알, 열매라고 부르고 있다. 9월부터 암그루에 노란색 열매를 맺는다. 은행의 열매는 과육성분의 외피 안에 단단한 껍질을 지닌 백색의 알맹이가 들어 있다. 노란색의 외피(씨껍질)는 악취를 풍기며 비오불이라는 점액 물질이 있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을 일으킨다. 껍질을 벗긴 열매를 백과라고 하는데, 날것으로 사용하면 유독하기 때문에 익혀서 사용한다. 씨앗은 진해, 강장의 효능이 있고, 뿌리는 백과근이라고 해서 허약을 보한다. 잎에서는 정코민을 추출하여 성인병 치료 약재로 이용한다.

은행나무는 오래 살며 수형이 크고 깨끗하다. 병충해가 거의 없으며 넓고 짙은 그늘을 제공한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정자수 또는 풍치수, 가로수로도 많이 심고 있다. 또, 껍질이 두껍고 코르크질이 많아 화재에 강하므로 방화수로도 이용된다. 목재는 황백색이며 조각재, 가구재로 쓰인다. 은행나무는 불상 조각의 좋은 재료다. 미산 금당사, 지금은 작은 산사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큰 절이었다. 이곳에 한국 유일물이 있다. 바로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삼존불이다. 이 불상의 예술적인 가치나 미려한 조각은 접어 두더라도 그 소재만큼은 잘 살펴 볼 일이다. 불상 자체가 천 년이 넘는 하나의 커다란 통 은행나무이기 때문이다. 높이 230cm, 가로 165cm다. 이 불상을 조각하려면 얼마나 큰 은행나무가 필요했을까?

은행(銀杏)은 은빛 나는 살구라는 뜻이다. 은행 열매가 살구와 비슷하고, 표면에 은빛 나는 흰 가루에 덮여 있어서 불은 이름이다. 중국에서는 압각수(鴨腳樹)라는 이름을 쓰는데, 잎이 오리발(鴨脚)과 닮아서 불인 이름이다.

은행나무목은 은행나무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과는 고생대 이집기(2억 8600만~2억 4500만년 전)에 나타난 15속(屬)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키크고이테스속(Ginkgoites)과 바이에라속(Baiera)은 모두 멸종했는데, 현생하는 은행나무 잎과 비슷한 잎이 화석으로 남아 있다. 중국이 원산지인 은행나무를 종종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도 한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절의 뜰에 심어왔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심어왔는지 확실하지 않은



은행(銀杏)은 은빛 나는 살구라는 뜻
방충작용하는 부틸산 있어 책갈피로 막

데, 고려시대 이전에 승려들이 중국에서 씨를 가져와 절 근처에 심은 것이 전국으로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나무는 고목이 많다. 다 자란 은행나무의 높이가 10~15m에 이르나 간혹 높이 40m까지, 지름 4m까지 자란 것도 있다. 전국에 산재한 은행나무 중 고목 21그루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호)는 현재 우리나라에 생존하고 있는 은행나무들 중에서 가장 크고 우람하며 오래 된 것이다. 나이가 1100살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42m, 뿌리부분 둘레 15.2m, 가슴높이 둘레가 12.3m이다. 줄기 아래에 혹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그의 스승인 대경대사를 찾아와서 심은 것이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세자 마의태자가 나라를 잃은 설움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던 도중에 심은 것이라고도 한다.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짚고 다녔던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뿌리가 내려 이처럼 성장한 것이라는 설도 전한다.

용문사는 많은 전란으로 여러 번 피해를 입었다. 특히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정미7조약(군대해산)에 항거해 정미의병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의병의 본거지라 해 사찰을 불태워 버렸으나 이 은행나무만은 불타지 않고 살아남아 천왕목(天王木)이라고도 불린다. 조선 세종 때 정3품의 벼슬인 당상직첩(堂上職牒)을 하사받은 명목(名木)이다.

이 나무에는 또한 이런 전설이 있다. 옛날 어느 사람이 이 나무를 자르려고 톱을 대었을 때 톱 자리에 서 피가 쏟아지고 맑던 하늘이 흐려지면서 천둥이

마이산 금당사 대웅전 봉안한 삼존불은
천년 넘은 한 그루 은행나무로 조성돼

일어났기 때문에 중지하였다한다. 또한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때 소리를 내었다고 한다. 고종이 승하하였을 때에는 커다란 가지가 1개 부러졌고, 8·15 해방과 6·25사변 때에도 이 나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한다.

은행나무는 씨이 틈 지 20년 이상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씨를 심어 손자를 볼 나이에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여 공손수(公孫樹)라고도 부른다. 가을에 껍질 안에 들어 있는 씨를 까서 구워먹거나 여러 요리의 재료로 쓰이기도 한다. 잎에는 여러 가지 화합물이 들어 있는데, 특히 방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틸산이 있어 잎을 책 속에 넣어두면

책에 좀이 먹지 않으며, 몇몇 플라보노이드계(系) 물질은 사람의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한반도에서는 기온이 낮은 고원지대(해발 500m 이상)와 북한 북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분포한다. 종자로 묘목을 양성하기가 쉽고, 묘목은 옮겨 심어도 잘 살며, 어릴 때의 성장이 빠른 편이다. 삼복을 하거나 꺾꽂이로도 번식이 잘 된다.

은행나무가 잘 번식하는 것처럼 저축은행(銀行) 사태도 잘 해결되고 은행동 사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은행알처럼 오순도순, 풍성했으면 좋겠다.

눈부신 황금 이파리들이 모두 지고나면 두꺼운 외투를 꺼내 겨울을 맞아야 할 것이다. 신록의 축제가 끝나가는 분위기다.

이우성 <소설가·동국대 문학과 겸임교수>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하않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맑고 함께 배출되기때문에 몸속 (체온) 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 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 8~10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 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온수발열체 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특별합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부원출판사 | 검색용 지름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외나무 진액 참외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외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외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꽃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외물을 만들었습니다.

▶꽃에 대한 술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꽃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외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